
새시대 교수법 158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모든 것을 다 바꾸지 못할 바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험하다. (The main dangers in this life are the people who want to change everything or nothing.) Lady Astor

“M 세대” 학생 맞이하기 3

(2) 해결방안을 교수님의 행동 범위 안에서 찾는다.

지난 호에는 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탓이론(attribution theory)에 대한 연구를 보면 성공하지 못했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를 주로 외부적 요건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운이 나빠서...” 또는 “세상이 말조라서...” 등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을 탓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찌해볼 도리 없는 상황이라고 정하면 일단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가벼운 어깨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다리가 휘청거리도록 육중한 무게가 온 몸을 억누를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무력함을 느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했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유를 주로 내부적 요건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운도 따라줬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 또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꺼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운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라고 마음속으로 성공과 행복을 확인하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M 세대” 학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방법은 생각과 행동의 초점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 이유야 어떠하든 이제 이들이 내 학생들이 아닌가.”

“준비가 덜 된 학생들,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기초지식이 약한 학생들에게 내가 할 일과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교육 목표를 수정해야 하나?”

“수업 방식을 달리해 볼까?”

“어떤 숙제가 적절할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에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물론 "M 세대" 학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조금이나마 발전할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버리십시오. 이 말은 일 초의 위안을 얻기 위해 일 년의 스트레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말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수님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코너>>

여성교양학회 회원 전원이 "재시대 교수법"을 신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주 대학의 김성희 교수님의 작은 모임도 환영합니다. "재시대 교수법"은 김성희 교수님같이 "재시대 교수법"을 다른 교육자들과 나누어 보시는 분들의 힘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l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l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